

열리는 제10차 의료단기 선교를 위해 가는 대원들과 보내는 모든 성도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하겠다. 모든 민족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는 구원받은 자가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이고, 결론이다.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서 세상을 구원하고, 나를 치유해서 세상을 치유하고, 나를 축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.

전도와 선교는 누구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다. 사실은 내가 누려야 할 축복이고, 인생 결론이다.

지난 두 주간과 오늘 나누어야 할 말씀이 그것이다. 나라가 망하고,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다.

55:3-4에 그들을 구원해서 “만민의 증인으로, 영적 리더로, 영적사령관으로 세울 것이라”고 약속하셨다.

사61:1-9에는 그들을 치유해서 “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”로, “세상을 치유하고 축복할 제사장”으로, 그 이유 때문에 “갑절의 축복을 누릴 자”로, “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”로 세우시겠다는 것이다.

본문 2-3절에는 “그들이 모든 나라와 왕들 앞에서 하나님 손의 왕관과 같이 될 것이라”고 했다.

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증거가 되고,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이라는 언약이다.

특히 4절에는 이들을 “헷시바”(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), “뿔라”(그는 나와 결혼하였다)라고 부를 것이라고 했다. 이 언약을 붙잡고,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가지 선교에 집중을 하고 와야 하겠다.

1.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, 선포하는 자들로 서야 할 것이다.

1) **이사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떤 상태인가? 누구를 치유하고 돕는다는 것은 전혀 안 맞는 말이다.**

나라, 교회, 가정이 전부 고통인 것이다. 그런데 10절에 “성문으로 나아가라”는 것이다.

성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는 말이다. 내 환경, 현실, 상처에 묶여 있지 말고,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계획, 절대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, 그 시간에 집중해보라는 것이다.

2) **이유가 뭔가? 우리에게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이다.**

그래서 먼저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계속 그 답을 주시는 것이다. 다 나를 떠나고 다 잃어버렸어도 상관없다.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(사7:14). 곳곳에 대적이 나를 무너뜨리고 짓밟으려고 악한 짓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다. 그 분이 직접 왕이 되셔서 평화와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이다(사9:6). 너무 허물과 실패 밖에 없어도 상관없다. 그 분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해방시키시겠다는 것이다(사53:5). 내 안에 숨겨진 상처까지 성령으로 치유하시겠다는 것이다(사61:1)

3) **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나 자신부터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, 선포하는 것이다.**

① **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졌기에 상관이 없는 것이다.**

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, 일심으로, 24시로 바라보면 모든 것을 증거로, 하나님 작품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이다.

② **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 한가지, “오직 그리스도”가 선포되지 않아서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는 것이다.**

하나님 만난 확신이 없다. 참된 해방이 무엇인지를 모른다.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모른다. 이것이 영적문제다. 중남미에 모든 것이 다 있다. 그런데 단 한번도 이 근본문제, 영적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은 것이다. 카톨릭에서 받은 마리아 우상,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한 해방 신학이 이 중남미에서 시작되었다. 말씀은 없고, 물질적인 구제에 집중하는 휴머니즘과 주술사 수준의 신비주의가 파고 들어가 있다.

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, 참된 해방,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기억되게 하고 와야 한다.

2. 이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과 나라를 살리는 참된 치유의 축복을 전달하고 와야 한다.

10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“백성의 길을 준비하고, 돌들을 없애라”고 했다.

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너무 엄청난 것이었다(창1:26-28). 창3장의 저주로 다 놓친 것이다.

여기 “돌”이 뭔가?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축복을 붙잡고 가는 길에 내 앞에 숨은 상처(암초)가 계속 나를 가로막는다.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참된 치유 사역이다.

1) **근본 치유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치유이다.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.**

그리스도를 통해 해방을 받는 것이다(롬8:1-2).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(요14:6). 이 그리스도를 통해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것이다(요일3:8).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, 다른 모든 것이 살아난다.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예배다(요4:24). 참된 예배 회복이 중요하다.

2) **마음 치유다. 마음과 생각이 다 병들어 있는 것이다.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다(사61:1)**

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계속 선포될 때, 성령이 말씀을 통해 그 마음, 생각까지 치유하는 것이다(히4:12)

그 말씀 운동을 지속할 제자를 찾아서 세워 놓고 와야 한다(요6:68). 특히 목회자들이 중요하다.

3) **육신 치유다. 영적인 치유와 마음이 치유되면 당연히 따라 오는 것이다(요삼1:2).**

내 인생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, 마음과 생각에 염려, 미움, 스트레스 가득차면 몸은 죽어갈 수 밖에 없다.

이번에 우리는 이 세가지를 같이 해야 한다. 실제로 전도자에게 그 능력을 약속하셨다(막16:17-18)

4) **환경 치유다. 지속적으로 사역자를 보내서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 흐름을 바꾸어주어야 한다.**

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한 사람, 한 교회를 찾는 것이 키다. 이후에 경제 치유, 씨앗 치유가 다 따라올 것이다.

3. 계속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선교다.

10절 하에 “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라”고 했다. 여기서 깃발은 무슨 깃발인가?

1) **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, 인도하시고, 모든 문을 여실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깃발이다.**

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고 대장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것이다. 그때 우리 앞에 흑암이 무너질 것이다.

2) **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중남미 33개국과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문을 계속 열어 주실 것이다.**

① **우리는 작은 사역을 하고 돌아오나 그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(요12:24, 고전15:58)**

지난 5년간 지속해서 다녀온 멕시코 지역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.

② **우리의 모든 수고는 전부 우리가 누릴 축복이다.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다(마25:40)**

그래서 정말로 나와 내 가정과 후대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고, 전도와 선교 속에 있으면 된다.

결론-다 무너지고, 잃어버린 것 같은 현실일 수 있다.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는 시간이고, 증인으로 서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이다. 그 축복을 위해 남겨진 자들이다.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한다.